

Economy Brief

걱정의 벽을 또 타고 올라가는 중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6월 중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각종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 둘씩 해소되고 중임.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 중심에는 유가 급락이 있음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22년 러-우 전쟁 당시와 달리 금리인상 사이클이 지속되기보다는 유가 하락에 힘입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짐

6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6월 FOMC 회의 불확실성도 큰 무리없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불확실성 고개를 큰 무리없이 넘어가는 중

6월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각종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5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 ECB 및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된 유동성 흐름과 상장 이후 주가 추이 등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가 큰 무리없이 소멸되는 분위기다.

물론 이란발 고유가 여파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이 주가와 금리 등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MOU 타결 소식에 따른 유가 급락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더불어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부담감을 크게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TI 기준으로 유가는 76.05달러까지 급락했고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78.96달러로 70달러대로 하락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전 수준인 배럴당 67달러(WTI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당사 예상처럼 유가는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걸프 국가의 원유생산 차질과 크게 낮아진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유가 하락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된다. 아무래도 종전 협의로 유가에 포함되어 있던 전쟁 프리미엄 해소 혹은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아닌가 싶다.

유가 하락이 반가운 것은 앞서 언급한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 중심에 유가가 있기 때문이다. 6월 유가 급락 영향이 물가지표는 물론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유가 급락으로 미국 소비자물가 등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5월 혹은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둔화될 공산이 커졌다. 하반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6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ECB 및 일본은행이 서둘러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여지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자주 비교되는 22년 러-우 전쟁 당시에는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공격적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지속되기보다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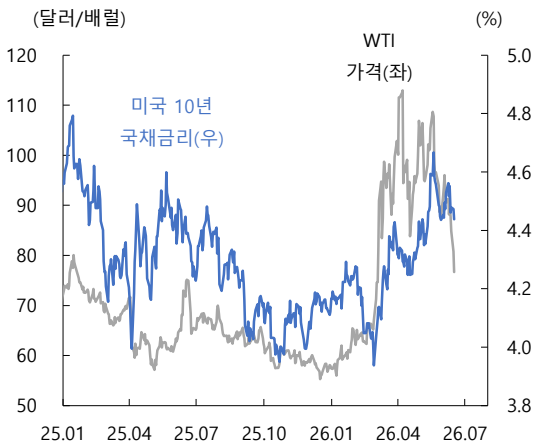
특히,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자칫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를 재촉받시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일본은행이 뚜렷한 추가 금리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은 동시에 국채 매입 축소 정책 중단이 엔 강세를 막으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담을 해소시켰다. 일본은행은 분기마다 2,000억엔씩 국채매입을 축소하는 소위 테이퍼링 정책을 27년 1분기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테이퍼링 정책의 중단은 일본 국채 금리 안정과 더불어 엔화 강세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 X의 성공적인 상장도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쏠림 현상과 더불어 상장이후 고평가 리스크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상장이후 스페이스 X 주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건조한 스페이스 X 주가 흐름에는 AI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도 담고 있다.

남은 6월 이벤트는 케빈 워시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

6월 주요 이벤트 중 사실상 남아 있는 이벤트는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6월 FOMC 회의 결과다. 매파적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사가 보고서를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FOMC 회의에서 다소는 김이 빠진 모양새다. 이 역시 유가 급락이 원인이다. 유가 급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금융시장에 줄 충격은 다소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다. 예상 밖으로 케빈 워시 의장이 강한 금리인상 시그널을 준다면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지만 역으로 우려보다 완만한 혹은 중립적 발언을 내 놓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환호할 여지도 있다.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6월 FOMC 회의 불확실성도 큰 무리없이 해소될 여지가 크다는 생각이다.

그림1. 유가 급락으로 미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연내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반영 중인 12월 FOMC 회의 금리인상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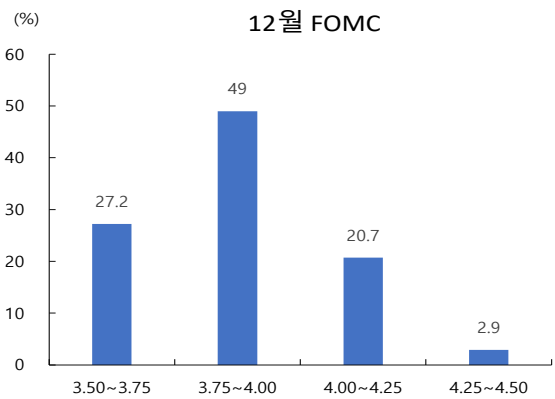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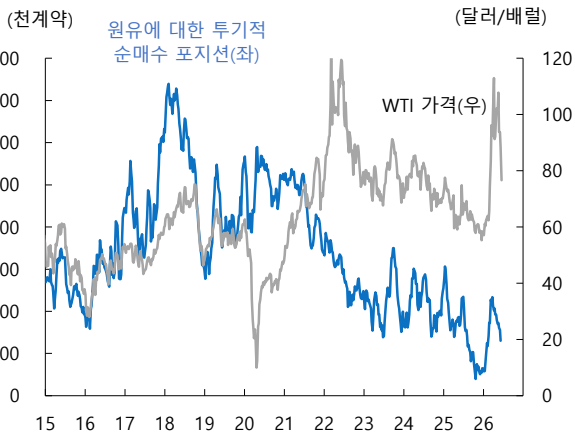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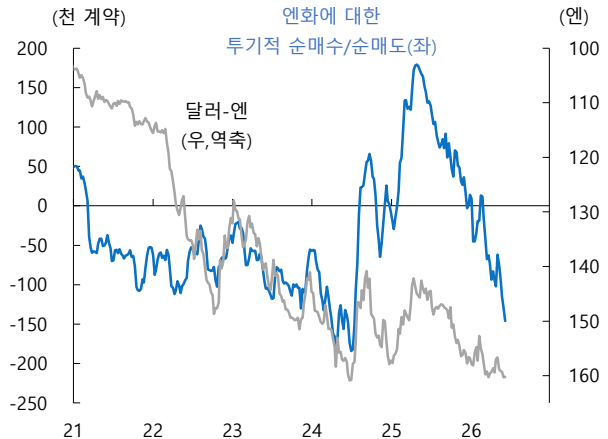


그림3.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규모가 축소 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규모는 금리인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증가 중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